

영화읽기



박노해 다큐멘터리 : 세발까마귀

이선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무국장

그것에 대하여

옛날에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었고, 몰래 말해왔던 것이었고, 꿈처럼 여기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나 '민주'와 '진보'를 외치던 사람들은 조심스레 '그것'을 가슴 한켠에 이상으로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입밖에 내서는 안될 말이었고 '그것'을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야하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침내 어두운 골방에서 세상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그것'에 대한 책을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이 현실세상에서 말하는 모습을 봐야했습니다. 1986년에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선언했고, 그 후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은 '인류의 이상'인 '그것', 즉 '사회주의'를 포기했습니다.

한국 땅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책이 쏟아져 나오고 사회주의 이론을 공부하고 변혁 운동에 대한 꿈들이 이상에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우리에게 '꿈의 나라'였던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져버렸고, 남한이 북한보다 위대하다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나 배웠던 '사회주의'라는 말은 제대로 알지도 못한채 '용도폐기된 낡고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사람은 많은 이들이 지독한 절망과 패배감을 안고 떠난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사회주의 깃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아름없이 부를 수 없는 이름

박노해.

시인이고 혁명가이며 노동자인 사람.

'노동해방'을 줄여 자기 이름으로 붙일만큼 꿈이 단단한 사람. 꿈이 죄가 되어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

박노해는 지금 경주교도소에 있습니다. 7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 감옥안에서 어느덧 40대 중년이 되었습니다.

한때 가난하고 힘없는 아들의 아픔과 희망이었고, 지금은 꿈을 가졌던 세대와 시대아픔의 상징이 되버린 박노해.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기준이 흐려지는 90년대 말에, 다시한번 꿈을 찾는 사람들과 한 번도 꿈을 버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박노해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들에게 박노해는 어떤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궁금합니다.

박노해 없는 박노해 영화

얼마 전 '세 발 까마귀'라는 조금 낮은 제목으로 박노해 없는 박노해 영화가 나왔습니다. 박노해의 가족, 친구, 동지들이 모두 나오지만 박노해만 없습니다. 농사꾼이 되었거나 이제 막 감옥에서 나온 박노해의 동지들과 자신도 감옥살이를 하다 나와서 이제 감옥살이 하는 남편 뒷바라지 하기에 바쁜 아내 김진주, 그리고 신부와 수녀생활을 하는 그의 형과 여동생의 모습, 그를 낳고 길러준 어머니, 그리고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박노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1시간 남짓한 영

화내내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박노해는 없습니다. 박노해 목소리도 없습니다. 박노해만 빼놓고 박노해 주변에만 머무르다 영화는 끝이 나고 맙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모습 하나 하나가 모두 또다른 박노해의 모습 같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붙이지 않고 그저 농꾼이 되어 농사를 짓고 사는 그의 동지나, 직장인으로 투병중이면서도 날마다 기도를 드리고 산에 올라 아들 이름을 목놓아 부르는 어머니, 오랜 감옥생활을 마치고 세상에 나와 다시 학생이 되거나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후배와 동지의 모습이 모두 박노해 같습니다.

박노해와 같은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백태웅은 옥살이를 하면서 언젠가 가장 힘드냐는 말에 '내게 힘이 넘칠때'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힘은 넘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을 인정해야 하는 절망으로 가장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마 박노해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때문인지 그는 지금 고단한 식발, 침묵, 정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밖으로 밖으로만 내뱉던 말들이 지금은 안으로 안으로 고여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해의 변화

박노해는 이제 투쟁 대신 '도덕'과 '환경'을, 노동자대신 '농민'과 '땅'을 이야기

합니다. 오랜 감옥생활 탓인지 생각이 바뀐 탓인지 '사회혁명'보다 '개인의 혁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변혁'의 주체 세력임을 한 번도 의심치 않았던 '노동자계급'을, 그가 그토록 투철하게 지키고자 했던 '노동자계급성'을 이제는 더 이상 그전처럼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현대문명을 살려낼 수 있는 원천이 농촌이고 농민이라고 합니다. 노동운동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땅이나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삶의 근본이 파괴되는 것이므로 노동운동또한 그 근본을 지켜내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두고 어떤이는 '변절자'가 되었다고도 하고 어떤이는 '진정한 혁명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도 합니다. '노동의 새벽'을 보며 운동을 시작했거나 그가 쓴 말 한마디가 그대로 지침이 되고 깃발이 되던 시절, 거기에 온몸을 던져 일했거나 그 깃발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런 그의 말은 참 혼란을 줍니다. 혼란한 시대가 정리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는 또다른 혼란 하나를 더 던집니다.

박노해는 정말 '변절한 패배주의자'인가 아니면 '진정한 혁명가'인가? 이론서적 대신에 정보문화잡지를, 민중가요 대신에 시태지와 록을 부르는 박노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박노해'가 단순히 '박노해 개인'으로 끝나지 않기에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 그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가 오랜 침묵을 깨고 새로 낸 책의 제목은 '사람만이 희망이다'입니다.

그가 옛날에 외치던 혁명에는 사람은 없고 혁명만 있었다는 자책인지 아니면 언제나 그랬듯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읽어보면 박노해가 요즘 생각하는 것이 '사람' '땅' '환경' 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책이 팔리기 전에 미리 인세를 받아 1000만원을 복덩어린이 돕기에 내놓았습니다. '우리모두 밥이 되어 달려가자'며 복덩동포돕기에 모두 나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였고, 변화를 기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제일 강조한다고 합니다. '생명'과 '사람'이 어느것보다 소중한다고 느낀 탓인지 굉장히 절실하게 호소합니다.

세발까마귀

이 영화의 제목은 세발까마귀입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세발까마귀는 고구려 무덤벽화에 나오는 검은 새인데 고구려인들이 희망새로 우러른 새라고 합니다. 사람도 새도 모두 둘로 짝을 이루고 발도 모두 두 개인데 고구려인들이 우러르던 까마귀는 왜 발이 세 개인까, 나머지 발 한개는 무엇을 뜻할까 시인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고 관념일 수도 있는 별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다 시인은 나머지 한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착각도 관념도 아닌 치열한 두발의 맞섬과 교차 속에 새로운 하나를 낳는 진보의 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양극단

속에서 한 국을 향해 온 삶으로 끝난 데까지 밀고나가 한 번은 다바친 시인 자신에게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발이고, 또 하나의 발이고, 희망의 발임을 깨닫습니다.

시인처럼 한 번을 다바치고 다시 새 삶을 준비하거나 이제막 한 번 다 바칠 결심을 하고 나선 사람들에게 박노해의 고민은 그들 자신의 고민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도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다 박노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나섰습니다. 박노해가 말하는 '농민'이나 '땅'의 의미는 감독에게도 혼란을 줍니다. 그가 말이 너무 많아진 것은 아닌지, 깨달음을 너무 쉽게 상업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와 우리 모두에게 걸려지지 않은 그의 생각을 '그대로' 들려준다면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겠지만 그는 답안에 있고 그를 가둔 답은 단단하고 높습니다.

감독은 그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박노해는 어서 빨리 현실세계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무기징역 사는 아들을 구해내기 전까지는 눈을 감을 수 없다는 박노해의 어머니(그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 바르게 키웠다고 자책합니다). 개인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기 아내를 한 개인으로 봐주지 않는다고 불만인 그의 아내 김진주. 감옥에 있는 시인이 석방되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름다워짐으로써 시인이 자유로워진다고 말하는 그의 형

까지 박노해가 석방되기를 어느 누구보다 애타게 바라는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박노해는 여전히 아픔으로 남습니다. 박노해와 모든 양심수는 석방되어야 합니다! (감독:오정훈(푸른영상) 상영시간: 70분) ❖

이, 영화, 박, 노, 해, 이, 이, 기

같은 박노해의 주소입니다.
(우780-600)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우체국
사서함 45호 777번 박기범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박노해 후원모임을 만들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노해를 알고 기억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가져옵니다. (02-777-0643)

이 작품을 만든곳은 제가 노동사회 8월호에 소개한 푸른영상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건전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 여러나 기술보다는 가슴과 발로 영화를 찍는 사람들, 자본과 시스템으로 온 작품을 하기 보다는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푸른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푸른영상은 독립운동 하듯 독립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분단, 인권, 노동, 여성, 빈민, 노년, 장애 등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건드려다 보니 대표가 구속되기도 하고 사무실을 털려 많은 걸 헛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곳곳에서 이 영상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푸른영상의 영상운동은 푸른희망이 함께 합니다. 1년에 15만원(분납가능)의 회비를 내고 푸른희망이 되면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재정이 무척 어려워 푸른희망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푸른희망이 돼 주세요. (대표:김동원 02-823-9124)